

진화생물학의 인간본성론과 조선양명학

강사 : 최종덕(독립학자, philonatu.com)

1. 강의 개요

한국철학과 현대과학 사이의 가로지르는 연결과 횡단을 주제로 하는 우리 강좌 중에서 현대 생물학 분야의 과학적 자연학과 조선 시대 양명학의 철학적 인간학이 어떻게 소통가능한지를 질문하고 그에 대한 대안들을 찾아 보는 첫 강의입니다.

서로에게 생소하고 전혀 다르게 보이는 두 범주 사이에서 가능한 철학적 소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맡은 저는 현대자연철학 그리고 생명철학을 전공하는 최종덕입니다. 저에 관한 모든 자료는 인터넷 홈페이지 philonatu.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서론삼아 생물학 분야에서는 현대 진화생물학의 인간본성론을 먼저 개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양명학 분야에서는 19세기 말 양명학의 학파를 은은히 이어온 양명 강화학파와 20세기 초 지행합일의 사상을 몸으로 수행했던 실천 지식인 박은식의 양명학을 중심으로 본 인간학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결국 이번 강의의 기본틀인 과학과 한국철학의 대화에 맞게 양쪽 분야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접점은 인간본성론입니다.

우선 진화생물학에서 말하는 인간본성론Biological Human nature이 무엇인지 개괄적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현대 진화생물학에서 가장 크게 논의되는 철학적 논쟁은 유기체의 진화가 생명 개체 차원에서 일어나는지

아니면 개체군 같은 개체들의 집단에서 일어나는지 혹은 진화생물학자로 유명한 리차드 도킨스처럼 분자 차원에서 적응진화가 일어나는지의 논점입니다. 이러한 논쟁을 적응진화의 “선택 수준” 논쟁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생물학적 선택수준 논쟁이 왜 조선 양명학과 관계가 있는지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생명개체 수준에서 적응진화의 압력이 작용되는지 아니면 개체군 집단 수준에서 작용되는지의 문제는 인간의 이기성과 협동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적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딱 분질러 말하기는 어렵지만, 개체수준 적응진화론은 인간의 이기주의 본성론을 대체로 함의하고, 집단수준 적응진화론은 인간의 협동주의 본성론을 대체적으로 함의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잠깐 말한 분자수준론은 개체수준론의 한 양상이므로 따로 논의하지는 않을 것인데, 오늘날 진화생물학 적응수준 논쟁에서 개체수준론이 지배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기주의 인간본성론을 기반으로 하여 인간의 모든 행동과 심리를 연구하려는 분야가 곧 개체수준 기반 진화생물학이요, 그런 이론이 지배적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진화생물학의 이기주의 인간본성론이라면, 이는 철학사에서 볼 때 흄스의 철학이나 20세기 자본주의 경제철학의 과학적 기반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생물학에서 적응수준 논쟁은 개체수준론으로 끝장난 것이 아니라 1970년대 이후 거의 사라지게 된 집단수준론이 다시 수면에 떠오르면서 인간의 이타주의 본성론도 새로운 시각으로 재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강의는 어떤 과학이론이 더 우세하고 지배적인지를 분석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런 과학이론이 철학적 인간본성론과 어떻게 대화가능하지를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화생물학 논쟁점인 개체수준론과 집단수준론을 같이 소개하려고 합니다. 생물학 관련하여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논점이 있는데, 인간의 이기적 본성론을

함의하는 개체수준론과 이타적 본성론을 함의하는 집단수준론이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이분화되어 서로에게 모순된 개념이거나 배타적이지 아니라, 이 둘의 논점은 서로 상보적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려는 데 있습니다.

진화생물학에서 즉 인간본성은 이기적 행동양식과 협동적 행동양식의 양면성을 가지며, 이러한 양면성을 배타적이지 아니라 상보적 양태로 드러낼 때 비로소 인간본성이 도덕적 지위로 승격된다고 말하는 것이 이 강의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물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본성은 이기적 측면과 이타적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점이 인간도덕성의 요체라는 점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양면적 인간본성론을 이 강의에서는 이기-이타성의 상보적 인간론이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과학 본성론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이 강의는 두 가지 개념을 유의하려고 합니다.

첫째 ‘이타적’이라는 표현은 웬만해서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타성 개념이 이기성 개념과 대비되는 뜻이기는 하지만 생물심리학에서는 여전히 모호한 기준이기 때문에 도덕성이 강하게 느껴지는 ‘이타성’이라는 말 대신에 가시적인 ‘협동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생물학에서 개체수준 기반의 이기주의 본성론에서도 협동성 행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개체수준론의 진화생물학자도 인간의 협동적 본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강의는 과학이론을 설명하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강의의 요체는 진화생물학 논쟁으로서 양면적이거나 상보적인 이기-이타 인간본성론이 조선양명학의 도덕 인간론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조선 양명학은 강화학파와 박은식의 양명학을 중심으로 말한다고 했는데, 이 두 사상의 흐름은 서로 구분되지 않으며 부패와 외세에 저항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지식체계로 그치지 않고 실천적 삶의 지표

로까지 확장되었다는 점을 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양명학 중에서도 지행합일을 좀 더 많이 강조하는 조선 양명학에서 도덕적 인간본성론과 생물학적 인간본성론 사이의 상호연결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점을 말하려 합니다.

상보적 인간본성론은 성즉리에서 심즉리로 전환하는 양명학의 인간본성론에 상응함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조선 양명학이 기존 주자학이나 조선을 지배한 성리학과 배치되거나 모순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본성론의 확장된 형태라는 철학적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2 진화생물학 적응진화의 (자연)선택수준 논쟁

2.1 진화생물학의 진화 기초론

먼저 진화생물학에서 말하는 인간본성론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진화생물학은 하나의 과학체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본성론을 말한다고 해도 과학으로 본 인성론과 도덕론으로 본 인성론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진화생물학의 인간본성론을 접근해야 합니다.

생명과학에서 말하는 인간본성론은 두 가지 방향으로 연구됩니다.

하나는 좁은 의미의 분석 과학적 연구방법론으로서, 유전자 분석을 통하여 인간의 형질과 행동을 파악할 수 있다는 환원적 인간본성론입니다. 현재 시점의 유전학적 형질을 근거로 하여 인간의 본성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근연적proximate 인과관계, 혹은 줄여서 근연적 인간본성론이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해서 생물학적 유전자를 통해서 인간학적 본성론을 인과적으로 유추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현상적 인과론을 기반으로 한 유추법은 요즘 말하는 유전자 결정론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한편 진화생물학에서 말하는 넓은 의미의 인간본성론이 있습니다. 진화의 장구한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인간다워진 통시적 과정과 그렇게 형성된

인간성의 특징들을 말합니다. 진화적 인간본성론은 장구한 진화 시간과 복잡하게 얽힌 생태적 인과관계 혹은 궁극적ultimate 인간본성론으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궁극적”이란 수식어는 인과관계를 완전히 밝혔다는 문제해결의 완결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가 직접적이고 “근연적”으로 밝혀지기 어려운 복잡성과 장구한 역사성을 가졌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우리 강의에서 말하는 생물학적 인간본성론은 복잡하고 중층적으로 진화된 본성론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진화의 과정은 현시점에서 근연적이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아니라 장구한 시간을 통해 간접적이고 복잡하게 얽혀진 관계일 것입니다. 그런 인과관계를 과학에서 말하는 “근연인”에 대비시켜 “궁극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연성 탐구방법론과 궁극성 탐구방법론의 차이는 다음 표를 참고하면 됩니다.(최종덕 2023, 114)

근연성proximate 탐구방법론 (분석과학 일반)	궁극성ultimate 탐구방법론 (진화생물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독립적 일반화의 존재론 • 인식론적으로 경험과학 • 단일한 인과관계를 찾는 과학 • 가설연역적 법칙과학 • 기계론적/결정론적 방정식 의존 • 탐구객체와 탐구주체의 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의존적 생명의 존재론 • 인식론적으로 경험과학 • 우연성과 복잡성의 인과관계 과학 • 시간과학의 성격 • 기계론이 아니고 생기론도 아닌 인과론적 과학 • 주객 네트워크(공통조상 이론)

진화생물학의 인간본성론은 인간의 본성을 형이상학이나 초월적 규범주의로 설명하지 않으며, 장구한 생명의 진화사를 통해 생성된 것으로 접근합니다. 진화생물학에서 말하는 인간 본성은 자연의 본성으로부터 유래되었기 때문에 인간성과 자연성을 하나의 뿌리로 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인간 본성과 자연 본성은 동등하기 때문에 개별 인간마다의 존재

론적 위계의 “차별”이 없는데, 단지 개별 인간 사이의 환경적 “차이”는 강조됩니다.

진 화 론	(공통조상 이론) 생명의 기원은 공통의 동일 조상에 있다. 즉 동일 조상으로부터 가지치기하듯 갈라져 모든 생물종이 형성되었다.
	(자연선택 이론) 자연선택의 진화란 환경에 의해 주어진 변이 가운데 적합도의 차이에 따라 적응된 형질들의 유전과 보존을 말한다.

진화생물학을 거론하려면 “진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논의해야 합니다. 찰스 다윈(Charles Darwin, 1809-1882) 진화의 핵심 개념은 “공통조상론”common ancestor과 “자연선택론”natural selection으로 요약됩니다.

찰스 다윈 『종의 기원』(1859)에서 말하는 진화 개념을 정리해준 마이어(Ernst Walter Mayr, 1904-2005)의 설명으로 대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어는 다윈 진화론을 아래처럼 정리했습니다.

첫째 모든 유기체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데, 그 변화가 진화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둘째 모든 생명체는 공통된 조상으로부터 가지치기 된 유기체입니다.

셋째 종의 증가는 종 다양성의 증가이며, 지리적 격리 혹은 돌연변이를 통해 새로운 생명종이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지리적 격변 요소 외에 진화적 변화는 점진적이라서, 급작스런 돌연변이로 새로운 종이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다섯째 유전적 변이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중에서 적응도 높은 것이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자연선택론입니다.

여섯째 진화의 방향은 진보와 다릅니다. 진보는 어떤 방향을 갖고 그 방향을 향한 목적적 변화이지만, 진화는 변화하지만 변화가 향하는 특정한 목적을 갖지 않습니다. 생물학적 진화는 인간사회의 진보와 달리 무목적적이라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마이어 2002, 9장; 최종덕 2023, 125에서 재인용)

2.2 자연과 인간

인간 본성은 자연 본성의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인간 본성은 자연적입니다. 자연적이라는 의미는 인간본성이 초월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처럼 변화하고 운동하는 성질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인성은 불변성, 영원성, 독립성, 객체성, 절대성이라는 존재론적 절대지위가 아니라 (1)변화하고 (2)상호적이며 (3)주관과 객관이 분리되지 않으며 (4)역동적 성질을 지니는 것입니다.

진화생물학의 인간본성론을 탐구하기 위하여 오늘의 인간이 인간다워지기까지 누적된 변화와 환경과의 상호성 그리고 역동성의 진화론적 경로를 추적해 봅니다. 이제부터 개념적으로 좀 어렵게 보여지는 선택수준 논쟁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앞서 말했듯이 자연선택이라는 적응진화 시스템 안에서 적응진화의 압력이 생명 개체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개체군 집단에 적용되는지의 문제는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인지 아니면 협동적인지를 가늠하는 생물학적 지표일 수 있다는 것이 이 강의의 주요 주제입니다.

2.3 적응진화의 선택수준 논쟁

선택수준이란 자연선택이 적용되는 대상이 집단 차원인지 아니면 개체 차원에서만 가능한지에 대한 진화생물학 핵심 쟁점의 하나입니다. 선택 수준 level / unit of selection은 이기주의-이타주의 논쟁의 생물학적 배경입니다. 선택 수준이란 어떤 개별형질 혹은 모듈형질에 진화적 변화를 주는 선택 동력이 유전자에 있는지, 개체에 있는지, 집단에 있는지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즉 선택압 selective pressure이 작용하는 수준이 분자 단위

인지, 유전자 단위인지, 세포 단위인지, 유기체 개체 단위인지 나아가 집단이나 개체군 단위인지, 아니면 생물종species 차원인지를 따지는 어려운 질문이라는 뜻입니다. 일단 생물종은 선택 수준의 단위에서 제외됩니다. 선택 단위가 개체인지 아니면 집단인지가 논점의 핵심입니다. 개체선택은 자연선택의 힘이 개체에 작용한다는 것이며, 집단선택은 집단에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집단선택론은 대체로 생물개체의 이타성 행위와 협동성을 설명하는 이론적 배경이며, 개체선택론은 집단수준을 부정하며 이기성 본성론의 기초이면서도 나아가 개체 수준에서도 충분히 협동성 행위를 설명할 수 있다는 이론적 배경입니다.

196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 이후 진화생물학자 조지 윌리엄즈(George C. Williams, 1926~2010)의 저서『적응과 자연선택』(Adaptation and Natural Selection, 1966)과 윌리엄 해밀턴(William Donald Hamilton, 1936-2000)의 ‘포괄 적합도’(inclusive fitness)이론이 등장하면서 집단선택론은 완전히 퇴출되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부분적으로 개체수준과 집단수준이 다층적으로 작용된다는 다층수준 이론이 부각되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이런 개체수준과 집단수준의 선택이론을 먼저 설명함으로써 인간본성이 이기적이냐 아니면 이타적이냐 라는 이분법적 배중율의 관점이 아니라 이기성의 본성과 이타성의 본성이 공존하는 공재적이고 상보적complementary인 관점에서 인간본성론을 해명합니다.

찰스 다윈에서 개체선택 수준과 집단선택 수준의 양면성이 다 나타납니다. 『종의 기원』(1859)에서는 개체선택의 수준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인간의 유래』(1871)에서는 집단선택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이는 다윈 자신의 논리적 모순이 아니라 『종의 기원』에서 말하는 생물학적 기준과 『인간의 유래』에서 말하는 도덕사회적 기준 사이의 차이일 뿐이며, 그 차이는 이분법적 모순이 아니라 병립가능한 공존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개인 차원에서 선택과 집단 차원에서 선택이 경우에 따라 공존하는 상보

적 선택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찰스 다윈은 본성론이라는 말 대신에 개인 행동양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찰스 다윈 『인간의 유래』(1871)에서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설명하는 문구를 인용해 봅니다.

“고급의 도덕 기준이 동일한 부족집단 내 다른 개인에게 약간의 이익이거나 아니면 이익이 전혀 없어도 계몽된 개인들이 늘어나서 결국 도덕 기준이 전체적으로 향상된다면, 분명히 그 부족 집단은 그렇지 못한 다른 부족 집단보다 크게 번성할 것이다. 애국심, 충성심, 용기, 동정심 등의 고급 정신을 지닌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부족 집단은 언제나 타인을 도와줄 수 있으며 집단의 공동선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렇지 못한 다른 집단보다 우위에 있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고급 문화의 부족 집단은 다른 집단을 대신 할 것이며, 그때 도덕은 그 우위를 차지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교육을 받아 도덕 기준을 갖춘 개인들이 많아지면 결국 어느 집단이나 흥기하고 증대될 것이다.” (찰스 다윈 『인간의 유래』 166쪽)

『인간의 유래』에서 다윈은 남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의 자기희생적 이타주의 행동 사례에 주목했습니다. 다윈은 두 가지 추론을 끌어냈습니다.

첫째, 부족 집단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불리함을 알면서도 집단의 이익과 공동선common good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행동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집단 안에서 그런 이타주의 행동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바로 그런 집단이 그렇지 못한 다른 부족보다 풍요롭다는 점입니다.

둘째, 이러한 이타적 행동도 진화의 산물이라는 점을 보여주려는 것이 다윈의 『인간의 유래』에 담긴 또 다른 의미입니다.(최종덕 2023, 186)

다시 강조하지만 1859년 『종의 기원』에서 말하는 개체선택론과 1871년 『인간의 유래』에서 말하는 집단선택론은 논리적 모순이 아니라 『종의 기원』

』에서 말하는 생물학적 기준과 『인간의 유래』에서 말하는 도덕사회적 기준 사이의 차이일 뿐이며, 그 차이는 모순이 아니라 상보적입니다.

2.4 다층수준론

개체수준 선택론과 집단수준 선택론의 다층이론은 인간의 이기적 본성과 협동적 본성이 상보적으로 결합되어 인간본성론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체수준과 집단수준을 결합시켜 보려는 생물철학자 소버(Elliot Sober)는 이를 다층수준 선택론multilevel selection theory으로 이름 붙였습니다. 소버는 다양한 수준에서 다층적으로 작동되는 다수준 선택이 적응진화의 광범위한 설명력을 갖게 될 것으로 주장합니다.(DS Wilson et al. 2008).

예를 들어봅시다. 벌은 둥지에 침입한 외부 침입자를 방어하기 위해 자신의 꼬리침으로 상대를 쏘는데, 그 침과 함께 자신의 창자도 빠져나와 죽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이 속한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또 새들이 땅에 앉아 먹이를 구하고 있는 동안 무리 외곽 경계에서 보초를 서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포식자에게 가장 손쉽게 노출되지만,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집단을 위해 보초를 섭니다. 수컷 사향소들은 포식자에 맞서 마차잇기 형태의 둥근 방어막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암컷과 새끼들을 보호합니다.

고전적 집단선택론을 붕괴시킨 윌리엄스의 『적응과 자연선택』(1966)의 핵심은 이런 사례들이 마치 집단선택을 옹호하는 증거로 잘못 인용되었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한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말해서 이러한 윌리엄스의 지적조차 집단선택의 가능성을 무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엘리엇 소버는 말합니다.

소버는 이런 사례들을 들어 개체수준의 선택이 기본적인 선택압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집단수준의 선택도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소버의 주장은 다층 차원에서의 자연선택 가능성을 언급한 것인데, 이는 개체선택과 집단선택이 형질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는 종합적 선택이론으로 볼 수 있습

니다(Sober and Wilson 1998).

다층수준 이론은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인지 아니면 이타적(협동적)인지를 배중울적으로 보려는 관점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줍니다. 즉 인간 본성은 이기적 행동유형과 협동적 행동유형이라는 이중 트랙으로 진화되었다는 생물학적 사실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3. 조선 양명학의 인간본성론

이 점에서 진화생물학의 인간본성론은 양명학 특히 조선 양명학의 인간본성론과 유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이 강의의 후반부입니다. 이기성과 이타성(협동성)의 상보적 공재를 보여주려는 진화생물학과 양명학 사이의 유비는 단순한 비유법이 아니라 인간본성을 이해하고 선형적이고 추상적인 도덕론을 벗어나서 행위와 인식의 일치, 자연과 문화의 일치를 지향하는 구체적 일상의 도덕론을 위한 추론 과정입니다.

자연의 마음이론이라는 점에서 생물학적 본성론과 소통가능한 철학적 논의들이 양명학에서 드러납니다. 특히 조선 양명학에서 현실 속의 실천을 강조하는 시대적 변화에 조응한 타자성의 본성론은 새로운 각도로 인간을 이해하는 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조선 양명학 이전에 먼저 양명학 일반을 대략적으로 서술합니다.

3.1 양명학 원형으로서 맹자

선(善)한 마음의 씨앗이 선천적으로 혹은 생득적으로 갖추고 태어나며 태어난 후에 나는 내 속의 선한 씨앗을 잘 키워내는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맹자는 말합니다. 맹자가 말한 착한 마음의 씨앗이란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의 사단四端입니다. 그 사단이 맹자가 말하는 양심(良心)의 원형입니다. 이런 맹자의 양심 개념으로부터 양명학 인간본성론의 토대가 마련됩니다.

전통 성리학에서 “본성은 리이다.(性卽理也) 마음에 있는 것은 본성이라 부르고(在心喚做性), 모든 사물에 있는 것은 리라고 부른다(在事喚做理)”(『주자어류』상 제5권)라고 말합니다. 주자학도 맹자를 받아들이지만 해석하는 방식과 방향에서 다릅니다. 주자에서 인간의 인의예지신은 선천적으로 갖춰진 리理입니다. 리가 기로 드러나는데, 본체의 리가 현상의 기로 나타난 것이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의 감정(情)일 것입니다. 맹자에서 사단은 양심으로 직접 드러나는 것이지만, 주자학에서는 리의 원형이 먼저 존재하고 그런 리가 발현된 것으로 보는 간접 표현방식으로 사단을 본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주자 성즉리의 요체입니다.

3.2 양명학의 키워드: 양지, 지행합일, 치양지

양명학에서는 주자학 전통과 다르게 성즉리 대신에 심즉리를 취합니다. 왕수인(王守仁, 陽明, 1472~1528)은 주자학의 본성론인 ‘성즉리(性卽理, 본성은 즉 리이다)’ 대신에 ‘심즉리(마음이 곧 리이다)’의 마음이론을 내세웠습니다. 양명이 제자들과 대화한 문답집 『전습록』에서 기존 주자학에서 의미적화 되었던 감정의 상태를 자연적 ‘본성’으로 재발굴함으로써 이기론에 종속되지 않은 획기적인 전환으로 인간본성론을 보여준 것입니다.

획기적이라고 표현했지만 양명학의 철학은 전습록을 통해서 전통 유학의 흐름을 거슬리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당대 주자학에서 볼 수 없었던 독창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양명학의 특징이 돋보였습니다. 양명학은 왕수인의 나이 37세에 나온 ‘심즉리’의 철학과 38세에 나와 세상을 흔든 ‘지행합일’의 철학 그리고 50세 나이로 천지만물 일체 설로 잘 알려진 ‘치양지’致良知의 철학을 아우른 하나의 철학체계입니다.

양명학은 왕양명 당시만이 아니라 후대에서도 이단으로 몰렸습니다. 양명학의 천하만물 평등사상 자체가 중앙집중형 권력체계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명학이 생겨난 중국에서 물론이고 조선에서도 양명학은 배척되었습니다. 왕수인 당시에도 그런 모양이었나 봅니다. 왕수인이 죽은 후 시기심이 많은 예부상서 계약이 왕수인의 학문이 거짓된 것이라고 조서를 내려 금하러 했습니다. 이에 첨사 황관이 상소를 올려 왕수인의 억

올함을 대신 호소했습니다.

그 호소문 안에 양명학 철학의 키워드가 그대로 들어 있기 때문에 그 호소문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황관의 호소문에 양명의 학문이 위대한 이유 3가지를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선 양명학의 큰 줄기를 이어온 박은식이 해석한 인용문입니다.(박은식/이종란 역, 2003, 340)

첫째 양지를 발휘하고 확충하는 치양지입니다. 앞에 이르는 치지는 공자에서 나온 말이고 양지는 맹자에서 나온 말인데 어찌 이단이겠습니까?

둘째 친민이니, 백성과 친하라는 말은 맹자의 여민동락이고 혈구지도가 친민의 원리인데, 혈구지도는 자기의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논어의 천와 같습니다.

셋째 지행합일은 주역의 "이를 곳을 알아 이르고 끝날 곳을 알아 끝내는 것"입니다. 왕수인은 이런 점을 찾아내어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헛된 말을 일삼지 못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왕수인의 학문이 바로 공맹의 학을 잇고 있으니 어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안에 양명학의 키워드가 다 들어 있으니, 그것은 양지요, 지행합일이며 치양지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철학 교과서에서 말하는 심즉리설(양지설), 치양지설, 지행합일설이라는 양명학의 본체를 대신 말하고 있는 셈이다.

3.3 양명학에서 자연적이란 무엇인가

양명학에서 천지만물은 생생하고 쉬이 없으며不息 그 가운데 새로움을 창출하는 “자기조직성”self organized입니다. 오늘날 서양의 네이처를 번역한 자연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 ‘천지만물’일 터입니다.

양명학에서 말하는 천지만물은 서양에서 말하는 물질적 자연으로 그치지 않고 사람의 마음과 천지의 마음이 더불어 새겨져 있는 자연입니다. 천지만물은 들숨과 날숨 그리고 흡입하고 배출하는 신진대사 작용을 하는 거대한 생명체처럼 자기 생명의 원인을 ‘자기 안에 스스로 그리고 저절로’ 품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자연은 “자기조직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의 본마음(본성)을 가르는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시비지심是非之心입니다. 양명의 시비지심은 맹자의 시비지심을 더 확충시켜서 올바른 판단과 그런 판단을 통한 실천을 포함합니다. 행동으로의 실천은 타자에 대한 공감과 통각을 거치면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자기조직적”입니다. 저는 이를 “유기적 생명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천지만물의 일체를 이해하려면(깨달으려면) 사람의 본마음이 천지의 마음에 합치됨을 파악해야 합니다.

“합치”라는 표현은 아주 추상적이지만 양명학은 합치가 가능하기 위한 구체적인 길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망막에 백태가 끼게 되면 세상이 흐리게 보이듯이, 개인의 사욕이 마음에 끼게 된다면 양지는 드러날 수 없고 마음에 장애물만 가득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본성이 아무리 청정(명영靈明)하더라도 사욕에 갇힌 해악만이 횡행해진다는 것이죠. 사욕을 걷어내기 위한 구체적 행동양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양명학은 강조합니다.

앞에서 천지만물의 본마음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는 기존의 성즉리에서 심즉리로의 변화를 대신 말해 준 것입니다. 심즉리란 마음이 곧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본성은 감정의 마음을 포괄하면서도 역설적이게도 개별자의 본성으로 국한되지 않고 하늘의 마음으로 접속되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의 본마음은 만물의 마음과 ‘감응’한다는 것인데, 거꾸로 말해서 누구나 감응만 이뤄내면 성인으로 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성인이란 그 마음이 순수한 천리로서 인욕人慾의 섞임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김세정 2020, 265에서 재인용). 성인의 마음은 천지만물과 한 몸으로 삼

으니 안과 밖, 멀고 가까움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인은 차별적 존재도 아니고 특별한 존재도 아니고 선천적으로 품부된(부여받은) 존재도 아니라 누구에게나 감응을 통하여 도달할 수 있는 “열린 존재”라는 점입니다. 바로 그런 열린 지혜가 심즉리의 양지良知라고 합니다.(김세정 2020, 266)

양지는 누구에게나 갖춰진 생득적 마음입니다. 양지의 마음을 실현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인이 된다는 점에서 양명학은 평등론의 철학입니다.(김세정 2020, 302) 양지양능良知良能에서 양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며, 양능이란 배우지 않더라도 능한 것을 말합니다(김세정 2020, 309).

양지는 영명靈明하여 천지만물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연결하여(응대하여) 자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김세정 2020, 311) 양지의 영명성이 있어서 개인의 정신 혹은 개인의식 수준에 머물지 않고 우주적 차원의 생명력에도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김세정 2020, 312) 개인의 생명과 우주의 생명이 만나게 되는 이유는 양명의 얇이 제도나 규범이 아니고 억지나 당위도 아니라 순응성에 있다는 데, 여기서 순응성이란 쉽게 말해서 자연의 순리를 안다는 것입니다.

양지를 실천하는 문제가 가장 큰 과제입니다. 양지를 실천하는 수준에 따라서 도덕적 행동양식의 층차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눈의 백태가 끼듯이 개인 욕망이 양심의 마음을 가려서 실천과 행동이 멀어지니 우리는 그런 층차를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욕심의 장애는 사람마다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그 차이는 생득적이라기보다 환경적 요소 때문에 생겼다고 봅니다.

그 층차를 굳이 나눠보자면 (1)원래부터 욕심의 장애가 끼지 않은 사람生知安行者, (2)힘써 배워서 장애를 벗겨내고 자기 안에 숨겨져 있었던 양지를 되찾는 사람인데, 이들은 스스로 반성하고 학습하여 노력하는 사람을 말합니다.學知利行者 (3)한편 백태가 너무 끼어 장애가 너무 심하니 사욕의 습관이 골짜기로 패어 양지를 찾는 실천행동을 쉽게 하지 못하는 사람困知勉行者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후천적인 층차가 있는 것이 문

제입니다.(김세정 2020, 305-6)

그러나 이런 3번째 층차의 사람들조차 스스로 포기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체적으로 판단하여 그 판단에 따라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주체성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김세정 2020, 307). 개인 사욕의 후천성을 잘 보기 위해 전습록에 나온 사욕에 대한 2 가지 문헌을 살펴봅니다.

첫째 사욕은 후천적이고 양지는 선천적이라고 합니다. “사람들 중에 누가 뿌리가 없겠는가? 양지가 바로 하늘이 심어준 영명한 뿌리이니 저절로 쉬지 않고 생성한다. 다만 사욕이 누가 되어 이 뿌리를 해치고 막아서 자랄 수 없을 뿐이다.” (전습록 황수역 244조목)

둘째 후천적 습관으로서 집착을 알아차려야 한다고 합니다. “칠정이 자연스러운 유행에 따르는 것은 모두 양지의 작용이며 (칠정 그 자체를) 선과 악으로 구별할 수 없다. 그러나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집착의 장애가 끼면) 안 된다. 칠정에 집착이 있으면(끼면) 모두 慾이라고 하여 그 집착이 양지를 가리게 된다.”(전습록 황성증록 209조목; 김세정 2020, 340)

전습록의 한 어구에서 보듯, “만물일체의 양지가 선천적으로 구비되어 있지만 사사로운 욕망의 장애물들은 양지를 가려(차폐시켜) 경쟁과 배제, 편벽과 고루함, 교활과 음험의 해악을 낳는다”(양명, 대학문; 답십문을 180 조목)는 표현은 양지가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런 해악이 해소되지 않고, 치양지致良知의 주체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뜻을 보여줍니다.(김세정 2020, 346)

양명학에서 말하는 물物은 내 마음에서 비롯된 의지에 의해 진행되는 실천행위를 말합니다. 우리 일상언어에서 사물事物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 사물의 事가 곧 物의 진짜 의미일 것입니다. 물이란 물리적 실체로 그치지 않고 내 마음의 연관적 관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물이란 타자를 대

하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物物은 곧 사事입니다.

사란 부정한 것을 바로 잡아 선을 행동하게 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을 곧 格이라고 합니다. 양명학의 物物은 주자학 格物致知의 格物처럼 외향적 격물에 이르는(이를 쫓) 대상이 아니라 정(바를 正)하게 실천하는 행위 유발의 관계를 말합니다. 주자에서 말하는 격물치지의 격물과 다르게 정심 正心으로서 격물의 관계론이 양지에 이르는 길입니다.(김세정 2020, 294)

4. 조선 양명학으로 본 인간본성론과 생물학적 본성론

4.1 조선양명학의 줄기

조선 양명학의 씨앗은 하곡 정제두 (霞谷 鄭齊斗 1649-1736)에 있습니다. 정제두의 양명학을 간단히 보면 (1)양지 본체가 마음 작용을 통해 구체적인 현실로 드러난다는 실천 중심의 이기일원론의 본체론과 (2)내 마음속에 선한 본성이 있어 그런 모습의 양지를 깨닫는 주체지향의 본성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씨앗에서 내린 조선 양명학의 뿌리인 강화학파 이건창과 이건승 형제의 양명학은 조선독립이라는 실천운동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일반 양명학 전통과 다른 점이 엿보입니다. 이런 실천사상은 하곡 정제두의 7대손 정원하와 독립운동의 실천가였던 이석영, 이회영, 이시영, 이상설 등의 양심적 독립운동가를 배출했습니다.

강화학파 이건방의 제자 정인보의 『양명학연론』(1935년 동아일보 ‘오천년 간 조선의 얼’ 연재 내용)과 박은식(朴殷植, 1859-1925)의 『왕양명선생실기』는 조선양명학의 특징을 더더욱 잘 보여줍니다.

4.2 박은식의 조선양명학

박은식의 『왕양명실기』(한길사 2010)를 중심으로 조선 양명학의 특징을 검토합니다. 『왕양명실기』는 동양학총서 제4집으로 박은식 전서 중권

(1975년 영인발행)으로 발간된 책입니다. 1888년부터 1894년 갑오개혁 이전까지 6년간 능참봉이 관직의 전부였던 박은식(1859-1925)은 원래 성리학 공부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에게 공부는 현실의 실천과 맞닿아 있어야 한다는 소명의식이었는데, 그런 소명의식은 일제 침략이 노골화되면서부터 더 확고해졌습니다.

1907년 4월 양기탁 · 안창호(安昌浩) · 전덕기(全德基) · 이동녕(李東寧) · 이동휘(李東輝) · 이회영(李會榮) · 이갑(李甲) · 유동열(柳東說) 등을 비롯한 다수의 독립운동가들에 의해 국권 회복을 위한 비밀결사로서 신민회(新民會)가 창립되자, 박은식은 신민회에 가입하여 교육과 대중매체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연이어 박은식은 대동교를 창립했습니다.

불행히도 유림계 신기선(申箕善) 주도로 세워진 대동학회(大東學會)가 있었는데, 이는 친일 행동을 노골적으로 할 정도로 일제를 대변했었습니다. 이런 친일 세력에 맞서서 장지연 · 이범규(李範圭) · 원영의(元泳儀) · 조완구(趙琬九) 등과 함께 박은식은 대동교를 창립한 것입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박은식 편)

이후 만주로 옮긴 박은식은 만주에서 나중에 대종교 3대 교주 윤세복과 만나게 됩니다(1911년). 박은식은 윤세복 집에서 머물면서 자신이 바라던 양명의 세계가 대종교가 원하는 세상과 연결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대동고대사론』 등 많은 역사 저술을 내놓습니다. 박은식의 『대동고대사론』은 만주 땅과 연관된 조선 고대사입니다.

박은식의 저술 중에서 『한국통사(韓國痛史)』는 매우 중요한 역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통사는 개인의 마음이 아닌 민족의 마음을 치양지 관점에서 쓴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일제침략에 대한 조건 근대의 마음을 서술한 것입니다. 박은식은 일본제국주의 침략의 잔학성을 폭로하고, 우리 백성들 마음 안에 자주의 역사의식을 심어 주교자 했습니다. 여기서 역사의식이란 독립운동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책에서 유명한 말이 있지요. ‘국훈(國魂)과 ‘국백(國魄)’을 나누어 일제에게 빼앗긴 것은 ‘국백’뿐이고 ‘국훈’은 우리에게 여전히 있으니 ‘국훈’을 이어 퍼트려서 독

립을 되찾자는 말입니다. 여기서 나라의 혼魄 ‘국혼’과 나라의 백魄 ‘국백’은 물론 혼백魂魄에서 따온 말입니다.

혼과 백의 차이는 딱 정해져 있지 않으나 박은식의 『한국통사(韓國痛史)』에서 말하는 맥락으로 보자면, 혼은 개별자로서 영혼이며 백은 공동체로서 영혼이라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이런 점에서 박은식의 국혼과 국백을 이해해야 합니다. 즉 개별자로서의 영혼을 일제에 빼앗겼더라도 공동체로서의 영혼을 아직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 영혼을 되살려서 개별자로서의 영혼까지를 되찾자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해석은 제가 만든 뜻이지만, 박은식의 양명학과 역사학이 접속되는 연결고리가 그런 뜻에서 찾아질 수 있습니다.

양명학에서 말하는 마음·심은 양지를 말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었지요. 나라를 걱정하고 구하려는 양명학 지행합일 관점에서는 국혼과 국백의 합체가 곧 양지로서의 마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혼’과 ‘국백’의 영혼이라는 말 대신에 ‘마음’·‘심’을 쓰면, 박은식의 “한국통사”는 조선 양명학의 다른 양태인 것입니다. 박은식이 쓴 두 권의 책에서, 『왕양명실기(王陽明實記)』가 철학적 이론이라면, 『한국통사(韓國痛史)』는 역사의 실천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박은식은 기존의 제왕론이 아니라 새로운 민본론으로 우리 정신을 강화하여 완전 독립을 쟁취하는 원칙을 말합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박은식 편) 이런 원칙은 전통 양명학 정신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박은식은 대동교의 대동사상(大同思想)과 양명학(陽明學)을 연대하여 기존 유교를 개혁하여 국권회복의 운동철학에 진력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실천철학을 강조하는 조선 양명학의 고유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강의 원칙과 유교를 구신해야 한다는 박은식의 儒敎求新論이 조선 양명학의 고유한 특징입니다. 그런 운동과 행동 차원에서 그의 『왕양명실기(王陽明實記)』가 쓰여졌습니다. 이러한 운동철학에 놀란 일제는 박은식이 관여했던 『황성신문(皇城新聞)』, 『서북학회월보(西北學會月報)』 등 관련 매체를 폐쇄했고, 박은식의 저술까지도 ‘금서(禁書)’로 막았습니다.(이종란 2003)

박은식의 행동정신에는 (1)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 두루 펼치

는 행동론과 (2)오래되면 썩어지니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구신求新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은식은 이러한 정신을 왕양명의 철학에서 공부했는데 그 공부의 행로는 조선 양명학의 고유성으로 이어졌습니다. 박은식은 이를 위하여 도교나 불교가 양명학과 어떤 관계인지를 주목했습니다.

4.3 도교/불교에 대한 비판과 수용, 그리고 지행합일

왕수인(1472-1528)은 명나라 중기 송명 이학인 주자학에 덧붙여 심학을 창시한 철학자입니다. 양명을 따서 붙인 이름 왕양명은 초년에 도교와 불교에 빠진 정도가 아주 심했다고 박은식은 씁니다.(왕양명실기 61쪽) 그러나 거기에 빠진 것이 아니라 주자학과와의 종합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통로를 마련한 것으로 박은식은 양명학을 해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왕수인은 불교와 도교의 허황함을 비판했는데, 그 비판의 핵심은 불교나 도교가 도덕의 문제를 거창한 우주론의 문제로 바꿔 말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불교나 도교는 '무'나 '허'의 개념을 자칫 우주의 최고 존재라는 형이상학으로 오해되게끔 한다고 왕양명은 비판했다는 점을 박은식은 강조한 것입니다.

박은식은 마음이론의 치양지 공부법보다 지행합일의 양명학 공부법을 더 강조했습니다. 양명학이 도가나 불교와 접근성이 높지만, 박은식의 조선 양명학은 불교와 도가의 허무성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행동과 운동의 철학을 부각시켰습니다.(이종란 66)

박은식이 말하는 인간의 본마음은 타자에 감통하여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교화할 수 있는) 실제적 힘이라고 합니다. 지행합일이란 움직임의 힘이며 구체적으로는 당시 민중의 상호부조론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조선 양명학의 특징으로 승화됩니다.

세상에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 완전히 무지한 사람은 없다는 지행합일에 대한 박은식의 해석은 매우 흥미롭습니다.(박은식 2010, 95) 예를 들어 우리는 음식을 먹는 행위를 통해서 비로소 음식(맛)

을 알게 되고, 길을 떠나면서 길이 험하거나 편한지를 알게 됩니다. 앎과 행동에 관한 공부는 서로 떨어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박은식 2010, 276) 행동을 통하지 않고서는 앎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지행합일이 있어야 비로소 양지의 본체가 더욱 밝아진다는 뜻입니다.(박은식 2010, 279)

친구 사이에도 겸손을 말하고, 부모의 효심에도 규범과 법칙 대신에 지행합일의 공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박은식은 양명을 공부하면 친구 사이의 겸손함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친구를 사귄 때 나를 낮추면 보탬이 되고 나를 높이면 손해 본다. 자기를 낮추는 것은 겸손이니, 겸손은 순전히 길한 것이므로 천지와 귀신이라도 복을 주거늘 하물며 동류인 사람이라?”라고 썼습니다.(박은식 2010, 275)

겸손은 평등함의 또 다른 행동입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간에도 평등하다는 생각과 그렇게 행동한다면 바로 그런 행동이야말로 천지만물의 양지를 얻는 지표인 셈입니다. 천지만물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성인의 마음은 천지만물을 한 몸으로 삼으시니 천하 사람을 보는 것이 안과 밖, 가깝고 먼 차별이 없고, 혈기, 즉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형제와 자식처럼 본다”는 뜻입니다.(박은식 2010, 280; 전습록, 권중 예기, 예운편)

주자학에서 말하는 오류는 하늘이 내려준 규범이기 이전에 원래 있던 천성의 발현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효도하고 공손하며 친구를 믿는 것은 원래 천지만물과 하나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이 몸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마음은 본성의 한 부분으로 본래 갖고 있는 것이어서, 외부에서 빌려온 것이 아니니, 누구나 이런 마음을 실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박은식 2010, 317) 알기는 해도 누구나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도록 게을리 하지 않고 자기를 관찰하는 것이 바로 양명학의 공부법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관념지식과 대비하여 경험지식을 구분합니다. 양명학의 지행합일은 이런 구분에서 벗어나 경험지식과 관념지식의 일체를 말합니다. 지행합일의 앎이 양지입니다.(박은식 2010, 279) 그리고 그런 양지를 실천

에 옮기는 것이 공부입니다.

4.4 조선양명학의 공부법

박은식은 공부 방법론을 말하면서 당시 조선사회에 양명학이 필요한 이유를 들었습니다. “학문을 닦은 공부는 간단하고 쉬우며 참되고 절실하니簡易真切, 참되고 절실할수록 간단하고 쉬우며, 간단하고 쉬울수록 참되고 절실하다.”(박은식 2010, 326) “양지의 이치는 간단하고 명백하거늘 수백년 동안 한결 같이 묻혀 있었다.”(박은식 2010, 239) 양지를 얻는 길로서 공부는 간단하고 절실해야 한다는 뜻을 말한 것입니다. 양지는 지행합일 조건을 채워야 합니다. 공부는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첫째, 부패와 외세에 저항해야 했던 당시 조선사회에서 이론보다 구체적인 공부법이 필요했었다는 점이고, 그런 점에서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간단하고 절실한 행동지침의 의미가 요청되었는데, 이런 시대적 요청을 수용한 것에서 박은식 조선 양명학의 고유성이 드러납니다.

둘째, 본마음(양심)의 형이상학적 해석보다 지행합일이라는 앎과 행동의 일체성을 특히 강조한 박은식의 조선 양명학은 유교구신求新론의 특징에서 그 고유성이 보입니다. 박은식의 유교구신론에서 실제로 박은식 민중(인민)의 삶을 개선하는 생활변혁론을 강조했습니다. (i)군주중심에서 인민중심으로 (ii)소극적 폐쇄성에서 적극적 전파활동을 (iii)산만한 주자학에서 간단하고 절실한 양명학으로 전환을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박은식은 유교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며 유교 자체 내부에 이미 개혁의 앎을 내재하고 있어서 그런 내재된 것을 찾아 끄집어내면 된다고 말합니다.(금강태 2006, 214)

셋째 박은식은 조선 양명학을 전파했던 40대를 지나 50-60대에 이르러서 이론가에서 참여적 독립운동가로 변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만주에서 독립운동 일선에서 일제침략에 저항하는 행동철학의 실천론을 고민했습니다. 51세 나이로 일제에 맞서 창립한 대동교 운동은 양명학과 중국 강유

웨이(康有爲, 1858-1927) 대동사상을 조선사회에 적용한 것입니다. 66세 때에는 독립신문사 사장을 역임했고 나중에는 임시정부 활동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넷째 박은식은 이런 행위의 지행합일 철학은 양지의 철학과 맞물려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박은식이 새롭게 정리한 양지는 (i)자연의 밝은 앎이고 (ii)한결같고 거짓됨 없는 앎이며, (iii)두루 행하여 중단됨 없는 앎이고 (iv)널리 퍼져 막힘없는 앎이며 (v)성인이나 우민이나 다를 바 없는 앎이고 (vi)하늘과 사람이 하나로 합치되는 앎이다. 이러한 양지는 행동과 운동의 정신적 원동력이라고 박은식은 강조합니다.(금장태 2006, 205)

다섯째 인식과 행동은 상보적이면서 나아가 기존 주자학과 양명학은 배척이 아니라 서로 상보관계라고 한 점은 박은식 조선양명학의 주요한 특징일 것입니다. 주자학과 양명학의 같고 다를 것을 말한다 하더라도, 주자학은 여러 사람의 이치를 궁구하여 얻는 것을 앎의 지극함으로 여기고, 양명학은 본심의 양지를 이루어 얻는 것을 앎의 지극함으로 여겼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자의 앎을 이루는 것은 후천적인 앎이요, 왕양명의 앎을 이루는 것은 선천적인 앎이니, 선천과 후천이 원래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주자가 언제 본심의 앎을 버렸으며, 왕양명이 언제 물리에 대한 앎을 버렸는지 정말 냉철하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자와 왕양명을 선명하게 절단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 단지 관점의 차이에서 멀고 곧은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박은식은 결론 내립니다.(박은식 2010, 347)

5. 진화생물학과 조선양명학의 상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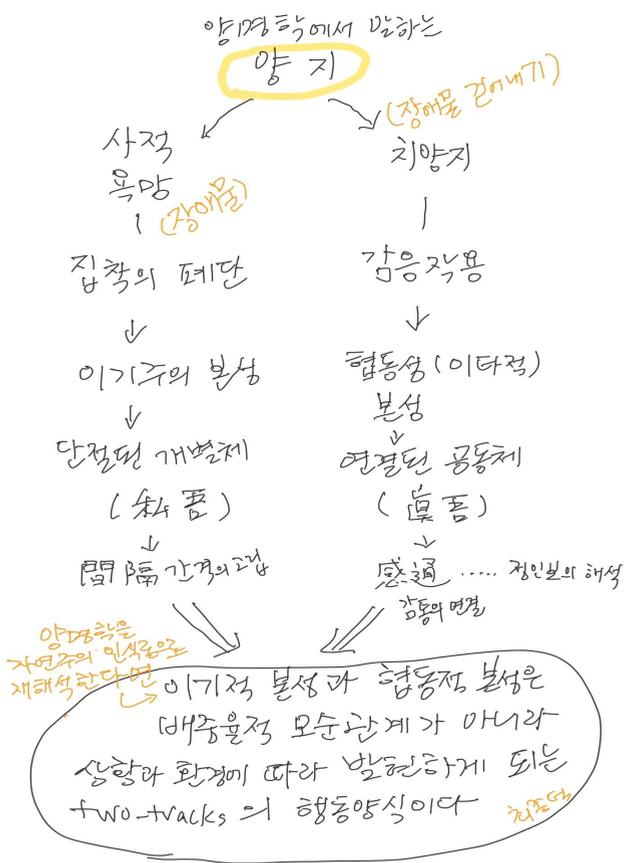
양명학에서 대동사회의 정신을 볼 수 있었는데, 배려와 공감의 마음을 회복하면서 대동사회의 가능성이 양명학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장애물을 걷어내고 양지를 회복하기 위하여 치양지의 길과 지행합일의 길을 찾는 일은 세기말 위기의 조선사회의 절대절명의 필요였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이 낳은 조선 양명학의 공감과 협동의 본마음 이론은 다양성, 온전성,

평등성, 그리고 유기적 상보성의 인간본성론의 핵심입니다.(김세정 2020, 399)

공감과 협동의 본마음 이론은 인간의 감정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지의 마음은 현실사회에서 감정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양명학은 오염될 수 있는 감정의 실상에 눈감지 않고 그대로 감정의 자연상태를 보여줍니다. 즉 앵지는 홀로 드러나지 않고 감정이라는 인간 요소의 작용으로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이런 감정요소로 말미암아 집착이 내 마음에 끼게 된다는 점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김세정 2020, 341)

감정의 측면인 칠정, 즉 기빠하고 화내고 안타까워하고 무서워하며 정에 빠지거나 미워하고 욕심내는 칠정은 그렇게 되면서 행동중독처럼 집착 행동의 습관양식으로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집착행동이 선천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후천적으로 강한 중독성을 가지기 때문에 집착은 정말 무서운 장애물입니다. “무서워서” 피하고 그냥 그럭저럭 지내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무서움에서 과감히 벗어나도록 스스로 결정하라는 것이 양명학의 실천적 지혜입니다.

양지가 공생의 치양지라는 실천의 길로 접어드는지 아니면 집착의 사욕으로 빠지게 되는지는 아주 중요한 마음의 기로입니다. 이 두 마음의 양식이 이것 아니면 저것을 선택하라는 이분법적 기로와 다르게 이것과 저것이 내 마음 안에 같이 공재하고 있는데, 다만 행동의 실천여부 즉 지행합일의 여부로 치양지 아니면 사욕이라는 어느 하나의 마음으로만 걸으로 보여질 뿐입니다. 실제로는 두 가지 마음이 공재한다는 뜻입니다. 양명학의 심즉리를 그림으로 구조화했습니다.



양명학은 양지의 본마음과 사적 욕망의 감정 사이의 갈등을 못 본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둘의 공존을 인정합니다. 집착폐단의 감정과 협동감응의 마음이 오묘하게 공존한다는 뜻입니다. 공존하지만 공존에서 벗어나려는 향심이 바로 양명학의 공부법입니다. 욕망 감정에서 벗어나려면 단절된 개별자의 私품(私意과 私欲)를 구석구석 찾아 끈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런 방법이 양명학에서 말하는 발본색원론(拔本塞源論)인데, 그 길이 바로 수양론의 핵심이며 공부법의 요체입니다. 양명학의 발본색원론은 거꾸로 말해서 감정과 양지의 공존을 잠재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심정 혹은 마음상태와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기적 본성과 협동적 본성은 배중율적 모순관계가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발현되기도 하고 삭제되기도 하는 이중 트랙의 행동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앞의 진화생물학의 인간본성론과 양명학의 인간본성론은 맥을 같이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정과 본마음 양지가 갈등하고 조화되거나 제거되는 과정에서 다양성, 온전성, 평등성, 그리고 유기적 상보성의 인간본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양성은 각각의 일자리에서 타자를 배려하는 일입니다. 온전성은 문명사회에 중독되어 피폐된 경쟁하는 마음을 고쳐서 덕성을 되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서구와 일제 외세 침략에 맞서 피폐와 악습을 개선하기 위해 평등과 공감을 회복하려했던 조선 양명학 정신은 백 년 전 한국사회 만이 아니라 오늘의 한국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데 큰 의미를 갖는 평등과 자유의 철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평등과 자유의 철학은 선과 악, 이기성과 이타성의 이분법 틀에서 벗어나야 가능합니다. 진화사적 인간학의 시선으로 인간본성론을 투영한다면 그동안 우리를 괴롭혀 왔던 선이나 악이나 라는 이분법적 본성론의 함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성과 양육, 유전과 환경, 마음과 신체, 이기성과 이타성이라는 생물학의 이항 관계들, 나아가 과학과 역사, 연속과 단속, 부분과 전체, 상관성과 인과성, 방법과 내용, 진보와 진화라는 철학의 이항 관계들이 이분법으로 단절된 것이 아니라 상보성 관계임을 강조합니다. 그 강조점은 진화생물학의 자연주의 인간본성론과 조선 양명학의 철학적 본마음 이론이 서로 응대되어 유기적으로 설명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현대생물학과 조선 양명학이라는 전혀 다른 두 범주를 인간본성론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범주 사이에 직접적 동일성은 없지만, 우리는 그 두 범주의 문제의식이 서로 동형적일 수 있다는 철학적 씨앗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 씨앗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뿌리내려 싹트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 금장태 2006, 『한국유교의 현실인식과 변혁론』 집문당
- 김교빈 2005, 『하곡 정제두』 예문서원
- 김교빈 1999, 「조선후기 주자학과 양명학의 논쟁」, 『시대와 철학』10권 2호.
- 김교빈 1993, 「霞谷 理氣論의 構造에 관한 研究」, 『유교사상연구』제6집
- 김교빈 1996, 『양명학자 정제두의 철학사상』, 한길사
- 김길락 2004, 『한국의 상산학과 양명학』, 청계
- 김길환 1994, 『韓國 陽明學 研究』, 일지사
- 김세정 2020, 『양명학, 돌봄과 공생의 길』 충남대 출판문화원
- 마이어 Ernst(최재천 옮김) 2002, 『이것이 생물학이다』 몸과마음
- 박연수 1999, 『陽明學의 理解 -陽明學과 韓國陽明學-』 집문당.
- 박연수 2007, 『하곡 정제두의 사상』, 한국학술정보, 2007.
- 박은식 1999, 『한국독립운동지혈사』 서문당
- 박은식(이종란 옮김) 2010, 『왕양명실기』 한길사
- 박은식(최재목 옮김) 2011, 『왕양명선생실기』 선인
- 박충석 1987, 『朝鮮朝의 政治思想』, 평화출판사
- 소버 E. Sober and Wilson 1998/2003, 『타인에게로』 서울대출판문화원
- 왕양명, 『전습록』
- 유명종 1983, 『한국의 양명학』, 동화출판공사
- 윤남한 1986, 『조선시대의 양명학 연구』, 집문당
- 윤사순 1986, 『東洋思想과 韓國思想』, 을류문화사
- 이경숙, 박재순, 차옥승 2001, 『한국생명사상의 뿌리』 이대출판부
- 이태진(편) 2003, 『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개정판)』, 태학사
- 정인보 2004, 『양명학 연론』, 계명대학교출판부
- 정인보 1935, 『양명학연론』(1935년 동아일보 ‘오천년간 조선의 얼’ 연재 내용)
- 정제두 1984, 『하곡집』 민족문화추진회, 『國譯 霞谷集』 I . II, 1984.
- 찰스 다윈 1871, 『인간의 유래』
- 최영성 1995, 『韓國儒學思想史Ⅲ』, 아세아 문화사
- 최재목 2005, 「동아시아에서 하곡 정제두 양명학이 갖는 의미」, 『양명학』

제13호

최재목 1996, 『동아시아의 양명학』, 예문서원

최종덕 2023, 『생물철학』 씨아이알

한국국학진흥원 2005, 『韓國儒學思想大系Ⅲ』

Wilson David Sloan, Mark Van Vugt, Rick O'Gorman 2008,
"Multilevel Selection Theory and Major Evolutionary
Transition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008;17(1):6-9.